

변검 보고 요리 맛보고...광주서 '중국'을 만난다

22~29일 '중국 문화 주간' 행사 다채

프린지페스티벌 연계
금남로·문화전당 등에서 진행
한중음식만들기 등 체험도

한국과 중국은 역사, 문화, 외교 등 여러 분야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광주시는 '중국과 친해지기' 정책을 중점 추진하고, 호남대학교는 '공자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중국과 다양한 교류를 펼치고 있다.

광주시와 호남대가 한·중 수교 24주년과 공자아카데미 설립 10주년을 기념해 22일부터 29일까지를 '중국 문화 주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가장 주목되는 행사는 22일 펼쳐지는 '제2회 중국 문화의 날'이다. 지난해 광주 시청 앞에서 열렸던 1회에 이어 올해는 프린지페스티벌과 연계해 금남로 차있는 거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돼 접근성을 높였다.

오후 2시부터 전일빌딩 앞 주무대에서 중국에서 초청한 변검 미술사 공연과 광주시립어린이합창단 중국 노래 공연을 선보인다. 또 서커스와 전통무술 시연도 무대에 오른다. 거리에서는 용춤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정음성 음악회도 감상할 수 있다. 변검·서커스팀은 올해 말까지 신청 기관이나 복지시설, 대학 등에서 공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화전당에서는 미술교류전과 중국요리페스티벌이 열린다.

전당 내 광장에서는 향긋한 음식 냄새가 관람객들을 유혹한다. 오전 10시부터 '2016 중국 요리 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요리페스티벌에서는 전문가와 일반인으로 나눠 국내외 총 200개팀이 음식 솜씨를 겨루 예정이다. 전문가 분야는 중국요리(전통·응용) 경연·전시, 채소·면으로 만든 음식장식 조각 경연·전시로 구성된다.

일반인들은 '도전! 한중음식만들기'를 통해 손맛을 선보일 수 있다. 누구나 참여



변검 공연

가능하며 오전 9시부터 현장에서 접수 받는다. 대상으로 선정된 3개팀에게는 3박4일 중국연수 체험 기회를, 금·은·동상에는 광주시장상과 부상이 수여된다.

수타자장면·딤섬 전문가 시연, 조리명장콘서트 등도 진행되고 한편에는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존이 마련된다.

창조원 복합6관에서 28일까지 열리는 미술교류전에서는 같은 듯 다른 한중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중국미술협회, 서예협회, 하북미술대학교 교수·학생과 광주 미술협회, 호남대 미술학과 교수·학생 총 110명이 참여한다. 동양화, 서양화, 서예, 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 110여점이 출품된다.

금남로 일원에는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부스가 조성된다. 제기차기, 마작 등 중국전통놀이, 5대 전통차·맥주 시음, 공예전시·제작, 소수민족의상 입어보기 등이다. '29호 영상제'도 열린다. 핸드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조희수, 전문가 평가 등을 종합해 시상도 할 계획이다.

월봉서원에서는 24~25일, 11월 두차례



광주 거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인문힐링 프로그램 '한국 전통문화의 이해'를 진행한다. 남도 선비 문화, 시조 낭송, 전통방상 시식 등으로 구성된다.

만들기 체험, 27일 전통문화관에서는 전통음식 체험이 펼쳐진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28~29일 광주우 발레단이 무대에 오른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송순섭



오정혜

'남도문예 르네상스' 서막 열다

전남문화관광재단, 20일부터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

전남을 대표하는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국가·지방무형문화재, 비보이 공연 등 세대를 초월해 전통예술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은 오는 20~21일, 25~26일 총 네 차례 남도소리울림터에서 '2016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기획공연'의 하나로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서막'을 추진한다.

'남도문예 르네상스의 서막'은 전남도립국악단, 목포시립무용단, 나주시립국악단 등의 브랜드 공연을 비롯해 국가무형문화재 송순섭 명창, 영화 '서편제' 주인공 오정혜씨 등이 참여해 공연을 선보인다.

먼저 20일 오후 7시에는 '문화의 섬'이라는 주제로 전남도립국악단의 타악퍼포먼스 '신명의 타고'를 시작으로 송순섭 명창의 '홍보가-제비노정기', 나주시립국악단의 브랜드 공연 '나추천가',

소리꾼 오정혜의 국악가요 '배 띄워라', '홀로 아리랑' 무대가 펼쳐진다. 이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강강술래(제8호)와 진도씻김굿(제72호)을 전남도립국악단과 진도군립민속예술단이 선보인다.

21일 오후 7시에는 '예술의 섬' 주제로 박금희 명창이 '수궁가 중 계면양류'를, 추정남 고수가 '심청가 황성가는 대목'을 선보이며, 광양시립국악단과 여수시립국악단은 브랜드 공연 '칠의 노래'와 '동백바람에 휘날리어'를 무대에 올린다. 또 김평호·예인동·김수용 명인이 꾸미는 '남도'가 낳은 가무의 광대 3인'과 하늘마치 뿌리패 예술단이 타악퍼포먼스와 비보이 공연을 선보인다.

그밖에 25일, 26일 오후 2시에는 '해설이 있는 남도문예르네상스 공연'으로 판소리 춘향가, 실내아 다향, 남도목포시립무용단의 '살풀이', 송순섭 명창의 '홍보가-제비노정기', 나주시립국악단의 브랜드 공연 '나추천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임영일 고법 발표회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

20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임영일 고법 발표회가 오는 20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시 서구가 진행하는 목요회 상설 공연 초청 무대다.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김성권류 고법을 선보인다. 고수는 단순히 창자의 장단을 맞춰주는 존재가 아니다. 반주자, 지휘자, 상대역, 효과나 조명을 대신하는 구실, 청중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해야 한다.

이번 공연에서는 진양, 세마치, 중머리 등 판소리에서 쓰이는 9가지 김성권류 전 장단을 연주한다. 윤진철, 주소연, 윤상호씨가 함께한다.

전남대 국악과 용인대 예술대학원을 졸업한 임씨는 광주시립국극단 상임단원, 전남도립국악단 사무



장을 역임하였으며, 2004년 제11회 서울전국국악경연대회 종합대상(대통령상), 2000년 제1회 서울전통전국고수대회 대상(국무총리상), 2012년 아리랑고법부문

예술대상을 수상했다. 국가지정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및 고법 이수자로 공연과 방송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무료 관람. 문의 010-3603-01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안도현



백석

안도현 시인이 말하는 '시인 백석'

26일 광산문화회관에서 인문학콘서트...안트리오 공연도

안도현 시인이 시인 백석(白石·본명 백기행)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광주 광산구가 오는 26일 오후 7시30분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갖는 인문학콘서트에서다. 이야기 주제는 '시인 백석을 통해 본 시

대정신'으로 안 시인은 백석을 사랑하게 된 사연과 함께 그에 대한 그림과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한다.

그는 해방 후 여생을 북한에서 보낸 백석의 삶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잘못 알

려진 사실도 새롭게 정정한 '백석 평전'을 지난 2014년 세상에 내놓았다.

콘서트에서 직접 쓴 평전에 근거해 백석의 다양한 면모를 상세하게 소개하며 강연이 끝난 후에는 저자 사인회도 갖는다.

강연 시작 전에는 프로젝트 그룹 안트리오(대표 안종민) 공연도 펼쳐진다. 관람료 1000원.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중이다. 문의 062-960-88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CGV광주용봉점 2층 상가매매

체육관련업종(에어로빅, 체육관, 당구장) 병원, 학원, 미용실, 골프 아카데미 등

- 전용 289㎡ (락볼링장 옆, 점포 2칸)
- 매 7억5천만원 (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5천만원

락볼링장 매매

CGV광주점 2층 최신시설 락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분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5천만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5천만원

화순 도곡 무인텔 매매

최근 올 리모델링 객실28개 최상의 입지 및 현 성업중

- 매23억 (근저당 14억5천만원), 실투자 8억5천만원

문의 010-3647-4747
(상기 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조정이 가능합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찜살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충청남도 진평향 그리고 혁신도시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 목, 토, 일
- ▶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염가공급 1톤 30만원 (양동,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